

“3일 휴식 문제없다” 광주FC 시즌 첫 연승 도전

오늘 광주서 대구와 10라운드
빡빡한 일정에 체력 관리 관건
헤이스, 7라운드 ‘베스트11’



광주FC가 휴에서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5 1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대구전은 오는 26일 예정됐었지만 광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엘리트(ACLE) 8강 일정으로 앞당겨 진행된다.

지난 6일 제주SK FC와의 홈경기 이후 3일 만에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됐지만 광주 선수단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앞선 제주전에서 후반 44분 터진 헤이스의 골로 1-0승리를 거뒀다. 헤이스의 3경기 연속골이 나오면서 광주는 시즌 2승에 성공, 한 번에 승점 3을 더했다.

광주는 로테이션을 가동해 연승에 도전하게 된다.

상승세를 탄 광주와 달리 원정길에 나서는 대구의 발걸음이 무겁다.

대구 앞선 김전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0-2로 지면서 4연패 늪에 빠졌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도 좋지 못하다.

4연패 기간 3골을 넣는 데 그친 대구는 무려 8골을 허용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5의 득실 차를 기록하고 있다.

불안한 수비로 연패 중인 대구에 비해 광주는 골키퍼 김경민을 중심으로 안정된 수비를 보이고 있다. 제주전에서 무실점의 승리를 거둔 광주는 앞서 진행된 1위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도 1실점의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 시즌 1위 독주 중인 대전은 8경기에서 13골을 폭발시키며 득점 1위 자리도 차지하고 있는 팀이다. 광주는 매서운 대전의 창을 1실점으로 막고 승점을 더했다.

‘로테이션’이 이번 경기의 관전포인트다.

3일 만에 대구와의 경기를 치르는 광주는 오는 13일에는 춘천으로 가 강원FC를 상대하게 된다. 빠듯한 일정에 장거리 이동까지 해야 하는 만큼 체력 관리가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광주가 베풀 끝 수밖에 나서는 대구를 상대로 효율적인 플레이로 연승을 만들 수 있겠는지 주목된다. 연승에 도전하는 광주는 대구전에 앞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앞선 대전전 퇴장으로 지휘봉을 마철준 수석코치



지난 6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헤이스(왼쪽)의 세 경기 연속골로 1-0 승리를 거둔 광주가 10일 대구를 상대로 시즌 첫 연승을 노린다.

〈광주FC 제공〉

에게 맡긴 이정호 감독이 경기장 밖에서 팬들을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

이정호 감독은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40분까지 약 50분간 광주월드컵경기장 옆 롯데아울렛 외부 광장에서 팬 사인회를 갖는다.

이정호 감독이 직접 구단에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이정호 감독은 다이렉트 퇴장으로 제주전에 이어 대구전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되면서, 팬들과 스킨십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을 위해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전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면서 광

주의 승리를 이끈 헤이스가 7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결승골을 장식한 헤이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8일 발표한 K리그 1 7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6라운드 일정이 전개된 K리그2에서는 전남드래

곤즈의 김경재(DF)와 최봉진(GK)이 베스트11이 됐다.

전남은 지난 6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전반 23분 상대의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

상황에서 김도윤의 골로 선취점을 만든 전남은 12개의 슈팅을 날린 부산의 공세를 막고,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베테랑 수비수 김경재와 수문장 최봉진이 상대의 공격을 완벽 봉쇄하면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입대 연기’ 광주FC 박태준 “아침 8강 최선”



올 시즌 전 경기 출장하며 중원 지배 ‘살림꾼’
병무청 배려로 사우디행 ‘목숨 하나 더 생겼다’

영광의 순간을 위한 광주FC 박태준(사진)의 ‘버티기’가 계속된다. 광주 박태준은 올 시즌 ‘정효볼’의 핵심 멤버다. 박태준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정효연을 대신해 올 시즌 광주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그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막고, 정확한 패스로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FC에서 광주로 이적한 지난 시즌 27경기에 나와 자리를 굳힌 박태준은 올 시즌에는 전 경기 나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태준은 ‘버티기’의 힘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광주로 이적하면서 성남 시절 인연이 있었던 이정호 감독과 재회한 박태준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고 2024시즌을 떠올렸다.

박태준은 “지난해 감독님께 육을 진짜 많이 먹었다. 초중반까지 진짜 많이 혼났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여기서 버티고 인정받으면 최고의 감독님한테 인정받는 것이고,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버텼다”고 이야기했다.

또 “많이 힘들었는데 묵묵하게 계속 열심히 했다. 혼자 노력도 하고, 영상도 많이 봤다. 노력한 게 올해 빛을 보는 것 같다”며 “내 개인 능력의 향상보다는 감독님이 알려주시는 걸 토대로 하다보니까 뭔가 더 편하게 축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축구를 하니 기술적으로 편한 위치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버티기 전략으로 눈부신 2025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는 간절하게 바라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엘리트(ACLE) 8강전 무대도 밟게 됐다. 지난해 12월 군국체육부대에 합격한 박태준은 지난 7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다행히 박태준은 병무청으로부터 입대 연기 허락을 받으면서 동료들과 함께 사우디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

K리그 유일한 생존팀 광주의 핵심 멤버로 한국 축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국위 선양’ 차원에서 귀한 시간을 얻게 된 것이다.

박태준은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생겼다. 목숨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며 “광주에서 더 축구를 하게 돼서 행복하다. 군대 가기 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승리 요정’ 돼주오

트로트 가수 박지현·크리에이터 랄랄 등 주말 SSG전 릴레이 시구

KIA가 주말 SSG와의 홈경기에서 승리기원 릴레이 시구 이벤트를 연다.



트로트 가수 박지현

KIA 타이거즈가 11일부터 13일까지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크리에이터 랄랄과 트로트 가수 박지현에게 시구를 맡긴다.

11일에는 크리에이터 랄랄이 시구자로 마운드에 선다.

부녀회장 컨셉의 부캐인 ‘이명화’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랄랄은 이날 이명화 분장을 하고 시구를 한다.

랄랄은 “아버지가 KIA팬이기도 해서 애착이 가는 팀이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 정말 축하하고, 이날 경기에서 꼭 KIA가 승리해 승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2일에는 광주 대인시장에서 천연 밥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온 김운경 씨가 시구자로 나선다. 김운경 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천연 밥집을 물려받아 2대째 선정을 이어오고 있다.

13일 시구는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맡는다. 박지현은 지난 2022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최종 2위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목표 출신으로 광주에서 대학 생활을 한 박지현



크리에이터 랄랄

은 “지난해 우승팀 KIA 타이거즈의 시구를 하게 돼 영광이다. 챔피언스필드에 직관도 갔었다. 시구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고 설렌다. 선수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 경기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SSG와의 주말 3연전을 ‘레트로 데이’로 치르며, 레트로 베스트 드레서 선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